

## 보도자료

2022년 5월 12일(목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 의 : 전파자원본부 공공주파수팀 팀장 변호천 (061) 350-1461

배 포 : 경영기획본부 ESG확산팀 주임 박지애 (061) 350-1394

# ‘23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위한 수요기관 간담회 개최 - 대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용 신규주파수 수급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‘KCA’)은 2022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간담회(이하 ‘간담회’)를 5월 12일(목)부터 13일(목)까지 2일간 오송 H호텔에서 개최한다.
  -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 관련 이용계획\* 을 사전에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 주파수의 이용목적, 망구축 계획, 공익적 필요성 등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
- \* 주파수이용계획 : 「전파법 제18조의6 ②」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, 지방공단 및 학교 중에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이 있는 기관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- 「전파법 제18조의8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·분석 기관인 KCA는 이번 의견청취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주파수 공급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, 소요량, 혼·간섭 영향 등 적정성 조사·분석을 실시한다.
  -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부처 간 협의·조정을 거쳐 「2023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」을 수립하고, 각 기관의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신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.

- 특히, 기상 관측, 공항 감시 등 공공용 레이다 주파수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주파수 공동사용,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  - 한편, 작년 신규 공공용 주파수 수요에 대하여 적정성 조사·분석을 실시했고, 최종 평가·심의를 통해 약 4.19GHz폭(기관 간 중복 포함)의 주파수 공급을 확정했다.
- KCA 정한근 원장은 “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주파수로, 대국민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”이라면서 수요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,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붙임 1. 「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수요기관」 간담회 세부일정  
2. '23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수요기관 간담회 포스터(사진대체)

## □ 목적

-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 제출기관을 대상으로 이용목적, 공급 필요성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제출기관 의견 청취
-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·분석 방향성 설명 및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 방법 공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

## □ 개요

- (일시) '22. 5. 12.(목) ~ 5. 13.(금)
  - ※ 참석기관 내부일정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나누어 실시
- (장소) 오송 H호텔 세종시티 3층 비바체홀(충북 청주시)
- (참석대상자) 약 50~60 여명
  - 관계기관 : 과기정통부, RRA, 중앙전파관리소, ETRI, KCA 등 20명
  - 이용계획 제출기관 : 국토부, 공항공사 및 해경청 등 40여명
- ※ 손소독제 비치, 환기, 참석자간 2m 간격 좌석 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

## □ 주요 내용

- '22년 신규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21개 기관(56건) 중 적정성 조사·분석 방향 설정 및 의견 수렴 필요 대상 18개 기관(45건)을 선정
- 이용계획 관련 주요 현황, 기술방식 등 제출기관 의견청취 및 적정성 조사·분석 관련 향후 진행 예정사항 등을 공유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